재한 미얀마 유학생들 "고마워요 전국비구니회"

미얀마 민주평화 기원법회 현장

이민우 기자 mincow@hyunbul.com

전국비구니회관에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법회가 열린다. 참여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참석하는 법회도 아니다. 법회에 참석하는 이들은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 이들은 특별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법회라고 입을 모은다.

4월 27일 오후, 법회가 열리는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을 찾았다. 법회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하나둘 전국비구니회관에 모이기 시작한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은 서로 반갑게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법회를 이끌어주는 비구니스님들께 합장 반배하며 예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곧 능숙한 한국어로 비구니스님들과 정다운 대화를 나눴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미얀마 유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지는 꼬박 3년. 지난 2021년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부터 전국비구니회는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회장 저윈태)에게 법당을 제공하고 월 1회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은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에도 함께 하고 있다. 이날 유학생들이 일찌감치 모인 것도 법회 전후 봉축행사에서 운영할 부스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함께 커피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가던 학생들은 법회 시간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만불전으로 향했다. 불교국가인 미얀마 출신 학생들답게 법당에서 묵언하고 진중하게 법회에 참여하는 모습엔 어색함이 하나도 없다.

이날 법회에는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도 참석해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광용 스님은 "타국의 낯선 환경에서 공부와 직장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어려울 때 함께 모여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의 고국 또한 평안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길 바란다. 전국비구니스님들 또한 수행자로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용 스님은 이어 유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맞잡고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유학생들 역시 광용 스님에 꽃과 선물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지난 3월 26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개최된 '미얀마 난민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통해 모금된 1000만원을 미얀마 현지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의미 있는 행사도 진행됐다.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 이사 수타 진 씨와 비서 얀 나인 쏘 씨는 함께 부처님 앞에 서 발원문을 대표 낭독했다. 유학생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서로 화합할 것과 혼란스러운 자국에 민주화와 평화가 오기를 서원하면서 군부의 무자비한 폭력 아래 쓰러져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법회를 주관한 전국비구니회 국제사회부장 정호 스님은 "법문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법회는 그보다 유학생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는 쿠데타 발생 이후 창립됐다. 이전에는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끼리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거의 없어 유학생들 사이에서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자국의 상황을 한국에 알리고 모금행사를 준비하면서 유학생들끼리 힘을 합칠 수 있는 단체 창립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은 한데 뭉쳐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를 만들고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유학생들의 사정을 전해 들은 전국비구니회는 연합회 측에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을 먼저 제안했다. 그렇게 시작된 전국비구니회와 연합회의 인연은 지금도 현재진행중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자국 사정으로 큰 걱정을 안고 있는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이 최소한 학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연합회와 함께 현지 난민들을 위한 물품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뿐만아니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과 불교음악회 등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유학생들은 "전국비구니회에서 제공한 불교문화체험이 심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비구니회의 관심과 도움을 받은 많은 미얀마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유학생들은 전국비구니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같은 미얀마인들끼리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에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만 가는 관심 탓에 모금행사를 진행할 장소를 구하기도 힘들어진 상황에서 전국비구니회의 장소 지원은 든든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3월 개최된 '미얀마 난민 어린이 그림 전시회' 역시 전국비구니회의 장소 지원과 후원이 없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

유학생들이 서로 만나 대화하는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 SNS나 인터넷 등으로도 소통을 할 순 있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차를 마시는 소통보다는 못하다는 것. 더욱이 코로나19와 쿠데타로 인해 귀국이 어려운 유학생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아 경영학을 전공한 얀 나인 쏘 씨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여름 졸업해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쿠데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고향을 가지 못한 지 5년째에 접어들었다.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얀 나인 쏘 씨는 "저를 포함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안고 생활하는 유학생들이 많지만 전국비구니회관에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며 "비구니스님들과 다른 학생들의 위로를 받아 지금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토목을 전공해 석사 학위까지 받은 수 타 진 씨도 정기모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고향과 가족 생각이 많이 난다. 그럴수록 더더욱 비구니스님들, 다른 미얀마 친구들과의 정기모임이 기다려진다"고 전했다.

저윈태 연합회장은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에는 한국불교계의 지원이 많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부터 관심이 많이 줄었다"며 "지난 3년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곳은 전국비구니회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불교계의 지원'이라는 기자의 표현을 '전국비구니회의 지원'이라고 정정할 정도로 전국비구니회에 대한 미얀마 유학생들의 신뢰는 두텁다.

정호 스님은 "월 1회뿐인 정기모임이라 그런지 유학생들을 보면 항상 반가운 마음이 든다"며 "평소 걱정과 불안이 많을 유학생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앞으로도 미얀마 유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전국비구니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저윈태 연합회장을 비롯한 유학생들은 전국비구니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에 미얀마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저윈태 연합회장은 "시민군과 미얀마 군부의 내전이 격화되면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군부는 학교와 사찰, 민가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피난민들은 태국 접경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지 피난민들은 식품과 의약품, 침구류 등의 생활물품이 절실하다. 한국사회의 관심과 도움은 미얀마 국민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 발생 직후 전국비구니회, 미얀마 유학생들에 장학금 및 모임장소 꾸준히 제공 그림전시회 개최로 관심 환기도

쿠데타 초 미얀마 지원한 불교계 현재로서는 전국비구니회가 유일 내전 확대로 희생자 수 증가추세 유학생들, 지속적 관심·지원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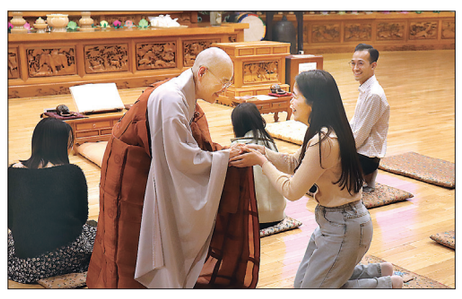


전국비구니회 국제사회부장 정호 스님과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이 정기법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 저윈태 회장(맨 오른쪽)을 비롯한 임원진이 법회에 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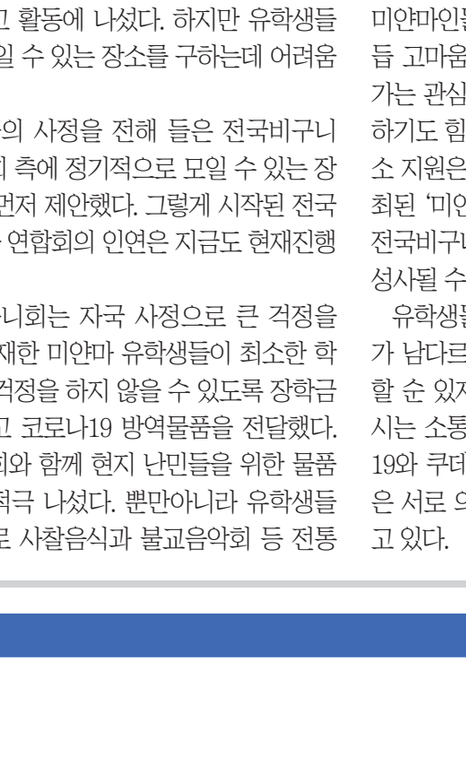
전국비구니회는 미얀마 난민 어린이 그림 전시회 수익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용 스님은 재한 미얀마 유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1979년 초판 출간 이후 60만 독자를 울린
우리 시대의 고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읽은 독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강제 소환한 바로 그 책,
1991년 증보판 이후 33년 만에 복간판으로 재탄생하다!

『사랑하며 용서하며』는
과연 무엇이 특별한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
향봉 스님의 가슴 시리도록
처절하고 아름다운 진솔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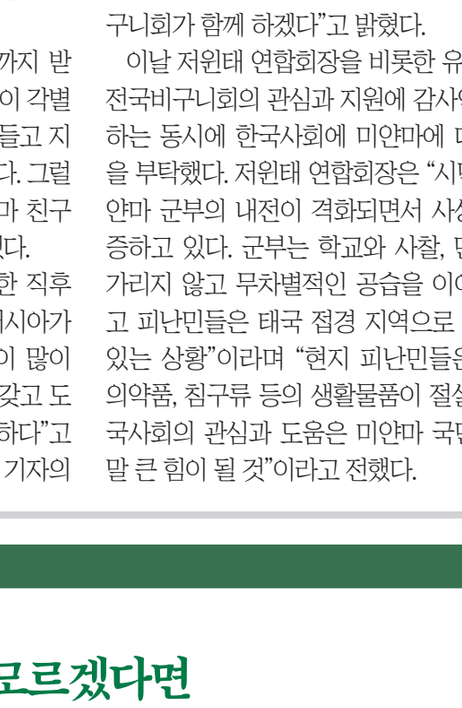
사랑하며 용서하며
향봉 스님 수필집

향봉 지음 | 264쪽 | 값 17,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반야심경』 공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드디어 나왔다!"
『반야심경』이 궁금했던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흥미진진한 『반야심경』 강의!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원영 스님의 반야심경

원영 지음 | 304쪽 | 값 18,000원